

공동체 학습 프로그램의 환경교육적 실현

—야마기시, 핀드혼 공동체와 동사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김태경(경인여자전문대학)

I.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지향점

환경문제는 환경의 오염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이다. 즉 눈으로 확인되는 환경문제는 오염이라는 현상으로 국한될 수 있지만, 이 오염이라는 현상이 생기기까지는 그 이면에 배태된 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뜻이다. 환경오염을 낳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회구조는 곧 개인과 자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공생적 관계가 상실된 사회구조를 의미하며, 이것은 17세기 이후의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합리적 개인주의로 이어져 형성된 현대의 사회구조와 직결되는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개인적 이성의 합리화와 공공의 합리적 사회 선택 과정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후대에까지 이어져야 할 자연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시장적 부의 수단이거나 효율적 생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왔음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 온 사항이기도 하다. 또, 사회체제의 성격을 불문하고 산업화와 함께 등장한 개인주의와 정치적 대중화에 따른 조직 인간은 자본주의체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합리화와 관료화, 조직화함으로써 개인의 특수성을 최소화시키고 범주화 균동화하거나 비인간화하는 과정을 자극해 왔다.

환경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바로 환경교육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영국 유물론의 창시자인 토마스 홉스(Thomas Hobbs)는 사회계약론의 필요를 역설하면서 인간을 대단한 경쟁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즉, 인간은 만인이 만인에 대하여 경쟁적, 이기적, 적대적, 폭력적일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서 자연에 대해서도 모든 자연의 산물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에덴동산이 아님을 역설하였다. 이런 주장은 하딘(G. Hardin)에게도 마찬가지로였다. 애당초 인류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동 목장(Commons)은 아예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거기엔 사람들의 무임승차 때문에 비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영국 동지에서도 종획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런 움직임은 17~18C 이후 서구사회에 산업자본주의를 가속화시켜 하딘의 말대로 이 땅엔 계속해서 환경문제라는 공동 목장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음이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회계약의 바탕을 이루는 흡시안적 사고에서 인간은 어차피 경쟁적, 폭력적, 이기적 존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류의 공동 목장이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전쟁터라는 것이며, 아울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때 교육을 통해서 경쟁적 상황이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있다. 그래서 17~18C를 넘어 오면서 우리

에게 형성되어져 온 교육이란 이성적 인간에 대해서 소위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틀」을 형성시키는 것이 주었다고 보아도 대과가 없다.

따라서 이 틀은 환경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위해적인 교육의 틀이 아닐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육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의 흐름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환경교육은 이 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틀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규모의 공동체들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지향점은 현실적으로 이들 소규모의 공동체적 삶의 현상이 어떻게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탐색해 보는 데 있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 택한 소규모 공동체는 필자가 직접 답사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야마기시 마을(三重縣 豊里 소재)과 지리산 백장암에서 직접 참여했었던 동사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것이 환경교육의 場과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필자가 설정한 『공동체의 환경교육적 효과』에 따른 기준으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서 모여 사는 사회이면 보통의 경우 공동체라는 말을 쓸 수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란 무조건 모여 사는 것의 전부를 지칭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일탈된 모습과 거리를 가지며, 어떤 형태로든지 인간의 원형적 삶을 구현해보기위한 의도적 목적을 가진 공동체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를 자연공동체라 하고 후자를 계획공동체라 하는데 우리의 연구 대상은 후자의 경우이다.

II. 지식으로서의 환경교육의 한계

합리적 행위자로서 교육받은 인간은 설령 Homo Homini angelus(인간이 인간에게 천사가 되는 관계), Homo Homini amicus(인간이 인간에서 친구가 되는 관계), Homo Homini lupus(인간이 인간에게 늑대가 되는 관계)의 어떤 관계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계산에 밝은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공공체에 있어서는 무임승차의 비협력이 지배적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오늘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교육이란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사고의 위치를 확연히 느끼지 못하고는 그 입지를 세울 수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환경교육의 모습은 사실 『자연 친화 교육』에 머물러 있음에 진배없다. 먼저 자연 친화 교육의 진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 다음 예를 들어보자.

지금 여기 강아지를 예뻐서 안고 다니는 소녀가 있다. 그 소녀는 강아지가 예뻐서 쓰다듬고 입마추고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러나 강아지가 늙고 병들어 있을 때도 그렇게 예뻐할 수 있을까? 물론 소녀적 감성으로 눈물을 흘리며 당분간 간호를 하고 호들갑을 떨겠지만 머지않아 그 강아지도 폐기 처분됨은 자명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소녀가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것은 심중팔구 자기만족적이고 자기감성의 일시적 발로일 뿐이지 진실은 그 개가 사랑스러워 그러는 것은 거의 아니라는 것이다. 또 실제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느끼는 사랑스러움이란 『친화』 그 자체의 진실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이것은 진정으로 강아지를 위하는 길도 아니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 많다. 유치원에 가는 어린 아이를 지나치게 치장을 해서 보내 아이의 활동력이 떨어지게 하는 경우도 웃을 입히는 엄마의 자기만족이지 아이를 위한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친화』란 크게 이러한 자기만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물론 성년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자연에 친화될 수 있도록 하면 될 듯 싶지만 『셈에 밝은 행위자』에 있어 그것은 『편리와 효율』이 몸에 배인 상태에서 자연친화를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을 생각할 때는 셈에 밝은 행위자로서의 사고 방식만을 가지고 대하지 않도록 교육의 방향이 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연 친화 교육 수준으로서의 환경교육 방향은 어렸을 때 자연에 대한 감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겨지게 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흠스가 당시에 사회 계약의 바탕으로 생각한 이성이란 그래도 중세적 감각이 남아있는 이성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 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지만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이성은 『자기 계산』의 극대화로서의 경제적 행위자의 밑바탕으로 완전히 전락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지식은 절대로 합목적적 행동의 연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져서 성인이 되고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자연 친화 상태를 이룬다 해도 이것은 이미 『상호합의에 의한 상호강제』와 같은 리바이어단의 출현에 의한 것이지 교육이 이루어 냈어야 할 본질이 아니다. 리바이어단의 출현으로 사회적으로 공정성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현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비유하자면 일 주일 내내 죄 짓고 일 요일에 교회에 가서 회개하는 모습, 그것과 진배없다. 더욱이 지금 우리의 현실교육에는 리바이어단의 모습이 그 내용에 암암리에 묵인되고 숨어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따라서 환경교육이란 지식으로 남겨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끝없이 환경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

의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환경의 존재론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기본틀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뜻이다.

흔히 환경 선진국이라하는 독일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환경교육을 『단절의 교육』이라 한다. 그 만큼 기존의 약 300년 정도 지배해 온 가치관이 많은 문제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 물든 다른 교육체제하고 타협이 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관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규모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체득해야 할 환경교육의 내용은 그 삶의 철학이 기존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이라는 데에서 이미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도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의 생생한 삶의 정신이나 철학을 환경교육을 통하여 다시 사회에 환원시켜낸다면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며, 또 전통적으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농경사회를 통해서 깊게 인식되어 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소규모 공동체라는 공간이 이 시대에 있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Ⅲ. 계획공동체의 환경교육적 적실성

1. 소규모 계획공동체의 형성 과정

17세기 후반 주로 신앙공동체로서의 이상을 꿈꾼 것이 계획공동체의 시작 단계이며 유럽에서 미국에로의 이민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땅에 유토피아의 꿈을 이루려고 공동체를 계획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 유럽 쪽에서는 신앙활동을 위한 공동체 조직이 이보다 앞선 시기에 활성화되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계획공동체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소외와 경쟁, 대립, 비인간화 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동

체성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실험으로써 이어져 온 것이 계획공동체의 계기가 되었으며 주로 수도권, 수녀원을 중심으로 에텐으로의 복귀, 붓다의 승가 공동체 등이 핵심적인 현신 메카니즘이었다.

18~19세기 초반까지는 초기 기독교의 공산주의를 모범으로 하는 공동체로 진행되었으며 19세기 초반 이후, 20세기 초까지는 산업사회에서 공동체 파괴의 핵심 원인을 사유재산의 인정에 있다고 판단, 초기 유토파관적 사회주의자들의 사유재산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 실험이 계속되었다. 20세기 중반까지는 맑스적 관점의 공산, 공유의 이상사회 건설을 향한 공동체 운동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맑스는 세계 단위의 공동체를 지향한 사람이라고 봐도 공동체적 입장에서 과언이 아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인류의 진보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할만큼 인류가 이룬 진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보가 아니며, 공동체를 회복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나, 문제는 인간과 자연성의 근본, 인간과 현실이라는 두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중도적 입장으로 버려내는가가 공동체 운동에 대한 성공의 열쇠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공동체들에서 지향하는 바가 공동 소유를 중심으로 한 공동 생산 형태에 중심을 두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의 편향적 사회구성체임을 의심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다만, 공동체를 형성한다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하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의 원리에 의존해서, 자체 수익 사업을 하되, 최대한으로 자본주의 시장원리의 부정의를 탈피하고 사회주의의 계획과 관리경제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벗어나려는 시장과 정치경제적 입장의 조화에 의한 자체적 경제 구성체를 위해 노력할 뿐이다. 이제, 막무가내의 이상적 유토피아는 절대로 될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이 공동체가 현실적으로 과고 들 수 있는 생태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점이기도 하며, 지나친 시장도 아닌, 지나친 유토피

아도 아닌, 시장과 정치경제학적 입장의 조화와 사회생태론의 성립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점에까지 와 있다.

2. 『느낌』으로서의 환경교육

공동체들이 왜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또 거기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가는 첫째, 수업을 통한 학습보다 참여 관찰의 경우가 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연에 대한 인식 역량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손에 쥐어 주어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무의하다는 것은 상식임에도 환경문제를 포함한 현대 산업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 사회의 절대가치들을 불러 넣어 주어도 사람들에게겐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인식역량)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악순환만 되풀이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현실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흔히 환경교육의 기본 목표를 모든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자연 환경과 인위적으로 이룩한 환경, 즉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 간의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인지하게 하는 데에 두고 있다(황만익, 1989). 이를 세분해서 보면 첫째, 자연환경과 인간이 포함된 사회 문화 환경 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 할 수 있으며 둘째, 환경문제와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대안에 대한 인지도를 증가시키며 셋째, 살기 좋은 환경을 이룩하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주 시민의 양성이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이 교육의 현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모든 주변 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소규모 공동체의 학습 프로그램이 환경교육으로 활용되어야 할 두번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이러한 공동체들은 모든 주변 여건이 지행합일의 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현실적인 교육 여건은 교육 따로 생활 따로인

것이 대부분이다. 설사 학교교육을 통하여 갖가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실현된다 할 지라도 현재와 같은 경제 소비구조에서는 그 수업을 진행한 학습자가 지행일치를 할 수 있느냐? 또 피학습자가 교문을 나서서 집에 오는 동안 모든 사회인이 학교에서 배운 환경교육이 이 피학습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과 일치되는 행위를 하여 이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내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해 주느냐? 또 그의 가정에서는 이 학생이 배운 대로 생활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현대와 같은 사회구성 및 경제행태, 소비구조 하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같이 『아니요』로 일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환경교육 내용과 사회적 실천 행동이 일치될 수 없는 상황이 환경교육의 가장 큰 맹점이며 이로 인해 그릇(인식역량)이 키워지지 않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교육자는 어렸을 적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그대로 실천 인식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성장함에 따라서 의식이 사회화되고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현실을 살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로 합리화 할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하다.

다시 말하면 지행합일이 될 수 없는 구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지녀야 하는 절대가치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현시대의 최대 위기로서의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절대가치를 불어넣는 일을 환경교육이 맡아야 한다면, 환경교육이야말로 지행합일의 실천구조 속에서만 가능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릇을 키우는 실천구조적 환경교육의 장으로는 현실적으로 공동체 실현지가 가장 알맞은 곳이며 공동체 실현지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교에서도 공동체 실현 학습을 프로그램으

로 개발해서 환경교육으로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이 논문은 사회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와 같은 계획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성을 지닌다.

『하고 싶어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같고,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같으며, 개인의 성장과 자유가 타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하며, 조화, 협동, 공리공생이 실존의 본질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면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창조하고 선택하여 자연과 정신법칙의 질서에 따라 친밀히 협동하면서, 물리(물질)적, 사회적, 정신적 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소규모의 사회』¹⁾

IV. 공동체 실현 학습프로그램에 의한 환경교육적 효과

1. 개인의 참생활 소비 수준 인식

공동체를 통해서 우선 느낄 수 있는 것은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이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깊이 느끼게 해 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상품소비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만 구입되지 않는다. 분명한 사용가치가 있어서 어떤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 광고나 유행에 의해 소비가 부추겨지는 것이 전체 상품의 반이 넘는다.²⁾ 진실로 필요한 상태를 현저히 넘어서 소비상태를 가르켜 우리는 과잉부유라 한다. 과잉부유를 면하는 길은 무엇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과잉부유에 빠져 있거나 빠질 수 있음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공동체의 삶에서 이것은 확연히 느껴질 수 있다. 흔히 시장경제 구조에서 인간

1) Rosabeth Moss Kanter, Commitment and Community, 공동체란 무엇인가? 김윤 譯, 심설당. 홍양표 (1992).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헌신 메카니즘, 한국정치학회 년례 학술발표회 보고 논문. 유정길(1993).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로서의 계획공동체 모색, 불교사회연구원 발행, 서원과 연대 Vol. 5.
2) 1994년 1월 2일자 조선일보, 서울 리써치 조사 결과.

의 행복지수는 소유 욕구에 대한 소유 정도로써 행복의 비율이 나타내진다.³⁾

이러하면 우리가 구입하는 상품의 반이 넘는 양이 꼭 필요해서 구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가슴에 느껴도 삶의 질과 행복은 과잉소비에서 오는 이기심의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탈피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참여 실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교육효과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환경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환경문제가 생태논리와 경제논리의 갈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의 삶의 문화는 자연을 이용하여 모든 가능한 인간의 부가가치를 덧붙인 후에 상품화된 상태에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만큼의 반작용이 있을 터이나, 문제는 그 반작용을 인간의 입장에서 느끼게 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간의 기술개발로 방지를 하고 살기때문에 더욱 더 그 부작용의 모습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은 기술개발에 많은 기대를 걸고 더욱 더 자연자원의 상품화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그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은 사실상 임시방편이지 그 피해가 영구적인 것이 못된 역사가 증명한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탐구는 현재의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체제와 생태체제를 인간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진작시킬 수 있다. 이미 세계 각국에는 각가지 헌신 메카니즘에 의한 공동체가 결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운영체계에 핵심을 이루는 노동력과 생산수단에 대한 결합형태가 어느 경우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합리성과 사회주의 관리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넘어선 대안 경제체제를 제

공해 줄 수 있다는 데에서도 대단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2. 창발성의 발현에 대한 인식

공동체 운동을 생태학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발성(eminent property)의 효과이다. 생태학적으로 본 창발성이란 어느 생태 집단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만 활동했을 때는 발현되지 않던 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활동했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발생시킨 효과의 총합보다 더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창발성의 원리이다.⁴⁾ 현대 사회에서 공동 생활에 의한 창발성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도시의 생활은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 소비행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자연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질서 의식의 발현

공동체는 분명한 그들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스스로 만든 자발적 통제 속에 자신들이 성취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목적에 따른 통제와 질서를 갖는다. 개인에게 할당된 양의 일을 하고 그 만큼의 소비를 하며 대부분 발달된 기계를 사용한 노동보다는 육체를 통한 노동을 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야마기시 공동체에서는 모든 작업을 공동으로 하되 정기적으로 그 직무를 교대하도록 되어 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직업마저도 소유치 못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유정길, 1993).

4. 형제애와 헌신성

3) 행복 = $\frac{\text{소유}}{\text{욕구}}$

4) 창발성을 더 구체적 예로 말하면 숲에서 나뭇잎들이 각각 발생시키는 산소량의 총합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숲의 청량감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에 비유하면 兼積利益(집적효과)와 같은 개념이다.

공동체는 인간간의 조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인간 사이의 경쟁과 질투, 충돌과 긴장을 야기시키는 인위적인 장벽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재산의 공유, 일의 공유, 사람의 공유, 가족의 공유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다.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대부분 과거의 각자 재산이 얼마였던 간에 모든 재산을 공유한다. 일도 누구나 싫은 일과 좋은 일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헌신성을 가져 차별없는 형제애를 구현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있다(Pepper, 1991).

5. 대안적 삶에 대한 실험정신과 그 동기 부여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현실 사회가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스스로의 옳은 삶을 살아보려는 인식에서 출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삶은 대단히 실험적인 요소가 강할 수 밖에 없다. 삶의 형태면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풍습이나 제도를 가질 수도 있고 색다른 관념을 가질 수도 있다.⁵⁾ 그러나 경제적 대안체제로서 실험적 삶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시장경제의 한계가 인정되고 있는 이때 대안경제체제로서의 협동조합 운동이나 스페인의 몬드라곤같은 새로운 기업공동체의 결성은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참신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그 대안적 삶의 형태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실험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회생태론이다. 따라서 공동체에서의 환경교육은 사회생태론이 왜 자본주의의 큰 흐름을 혼란시키지 않으면서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가를 설명하고 공동체의 실현이 곧 사회생태론의 실현에 대한 동기부여가 공동체 실현학습을 통해서 피학생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다.

6. 차별과 차이의 생태학적 인식

생태계의 원리로서 경쟁적 배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생태계에는 공동 우승이 없다』는 원리이다. 같은 조건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어도 생물은 중간 경쟁을 하여 결국 한 쪽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차이를 혼동하여 발생하는 현상이 너무도 많다.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각자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그 차이에 맞게 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태학적으로도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구성체들이 전부 다 똑같지 않다. 종들 사이의 차이는 물론이지만 동종 사이에서도 힘의 우세나 양분의 수용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대로 나름의 역할을 한다. 공동체의 구성에서도 차별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불문율이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차이대로 노동이나 교육, 역할을 다르게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는 현실 사회에서 그대로 통하지 아니한다. 저 사람과 나의 차이라는 것은 수많은 분야의 비교 검토가 가능한대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에서의 차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획일화되어 있고 특히 자본주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차이 의식이 부의 소유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그 부의 능력 차이는 곧 사람의 모든 능력의 차이로 연결된다. 이러한 현실 사회에서의 차이의 개념은 모든 이로 하여금 똑같은 소비수준이 되어야 그것이 곧 행복의 실현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것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와도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출구가 막히고 단 하나의 출구만 열려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획일화된 행복의

5)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인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개념은 사람들의 소비와 욕망의 증대를 계속적으로 가속화시킬 뿐이고 오염은 끊임이 없어진다. 차별과 차이의 혼동으로 인한 또다른 문제는 남녀차별이라는 문제에서도 대두된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의 차별이란 많은 부분이 남성권 위적인 면 때문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V. 공동체 실현학습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환경교육의 장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활용되지 못할 곳이 없다. 어느 곳이든 환경을 배울 수 있고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어느 곳이든 교재아닌 것이 없을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공동체 실현지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훌륭한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이나, 우선 쉽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탐방하기 쉬운 우리 주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공동체 실현학습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모임을 찾을 수도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 전통 마을들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동체의 모습을 탐방하는 것도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공동체들의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일본의 야마기시 마을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유와 한국의 동사섬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검토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사례 1> 야마기시 가이 (山岸會)⁶⁾

산안회는 일본에서 야마기시 미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닭을 기르는 농부로 선불교, 마르크스주의, 비폭력주의, 중국철학 등을 섭렵하고 나름대로 독특한 철학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1953년 야마기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소위 연찬(研鑽) 과정을 처음 열었다. 연찬 과정이란 생활에 관련된 일상의 일부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구성원들이 토의하면서 조금의 반대도 없는 상태까지 연구 진행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⁷⁾ 그 과정에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철학, 그리고 이러한 철학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 밖에도 삶의 여러 문제들을 터득하게 된다. 1958년 일본의 옛 도읍지인 나라 근교의 대규모 양계 단지를 시작으로 야마기시가 본부가 개설된 뒤로 그후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인근 지역 도쿄, 홋카이도 등 일본 전역에 33개 지역의 실현지를 갖고 있고 한국을 비롯하여 타이, 스위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에 실현지가 있는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성공적인 대표적 공동체이다.

1) 산안회의 운영

① 기본 원칙들

산안회의 운영은 첫째, 私意尊重公意行(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뜻을 실천해 간다)을 대원칙으로 하며 둘째, 계급이 없고 특히 우두머리, 지도자가 없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하며 전문분업, 일역 3인제, 자동해임, 전원일치, 자세한 설명, 대표제, 연찬운

6) 야마기시의 소개는 불교사회연구원 유정길의 방문기도 참고함.

7) 산안회는 모든 것이 연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연찬회란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올바른 진리의 이치를 찾아내며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다. 산안회를 오늘날까지 잘 유지, 발전시켜온 것도 연찬회의 덕택이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의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라든가 문제를 적당히 풀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일에 중지를 모아 검토하고 최고, 최선, 최종적인 것을 끝까지 똑똑히 보고, 그것을 실천하여 이상 사회의 실현을 기하는 것이며 가 르침보다도 철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진리와 방법을 서로 탐구하여 행동하는 연찬을 베풀고 있다.

영,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없음, 감시없음, 보상없음, 죄와 벌이 없음, 급료없음, 대립없음의 일체운영을 지향한다. 셋째 자발적, 자각, 납득, 무타협, 임의와 자율, 반성, 자유의지, 복종 없음 넷째, 유희없는 무정돈의 생활배치로 규율을 짜거나 법칙을 정하지 않는다.⁹⁾ 다섯째, 모든사람이 지정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한다.는 운영원칙을 갖는다. 산안회에는 월급도 없고 따라서 특별히 정해진 분배의 개념도 없다. 다만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살고 있는 지극히 획일화된 시각에서의 의문이다. 실제 이들은 끈임없는 연찬으로 이런 과정들이 참인간의 살 길로써 정착이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실현지를 가지게 될만큼 성장하여 그들의 이상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은 여기서 종교나 신앙을 인정하지도 않는다(특별한 정신적 매개체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어떤사람이든 어떤 사건이든 『일방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데는 자신의 생각으로의 판단과 그것을 고집하는 자세는 이미 대립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②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경험과 자동해임의 원칙

산안회에서는 하루 2시간을 다른 직장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0일 중 1일은 아예 다른 장소 다른 직장에서 보내게 되어 있는

데 그 목적은 마을에서 동지나 동료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일체의 삶이 깊어지는 계기도 되고 그 직장에서는 바쁜 사람과 접함으로써 신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때의 기본과 육체의 피곤해짐을 자동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갖는다.⁹⁾

그리고 매년 6월과 12월에 실현지 내에서 일하는 구성원 전원이 자동해임되는데,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의 장에 대해서 기회균등을 위하며,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닌 누가 사용해도 좋은, 다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개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임 후의 배치는 각자의 희망과 개성 발휘에 따라 실현지의 상황과 필요성에 의해 배치가 결정된다.

③ 식사, 육아, 결혼, 남녀관

식사를 생존의 필수요소로 때가 되면 먹어야 하는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식사행위 자체를 마치 축제처럼 생각하고 식생활의 행복을 추구하며 일체 생활의 장으로 여기면서 이루어진다. 식사도 개인의 식사양식(영양식, 자연식, 편식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골고루 잘 먹게 하고 1일 2식(11시와 오후 6시)으로 이루어진다.¹⁰⁾

결혼은 전인행복 운동의 기본이며 끝맺음으로 본다. 즉 진정한 결혼이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는 마음 속에 모든 것을 일체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본다. 서로

8) 아무리 일해도 좋고 아무리 쉬어도 좋다. 벌이 없다. 실제 실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취침 시간이 나 기상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작업을 시작하는 시간만이 있을 뿐이고 그것도 나와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

9) 마르크스의 기술론과 흡사한 것이며 직장의 총합성을 추구하는 것과 상통한다. A. A. Kusin, 마르크스 기술론. 노태천 역. 문학과 지성사.

10) 배가 비어 있어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고, 가끔 먹어야 하며, 음식은 맛이 있어야 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화통한 상태이어야 일체의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식사의 지론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생태학의 원리 체득이다.

계약이라든지 속박, 불안, 대립, 권리와 의무에 대한 책임부담, 지위차 우열감, 승부감, 증오 및 반감, 질투, 독점, 슬픔, 고민이 없는 바람직한 결혼을 위해 참된 인간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부부간에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 정신과 각자의 사고와 행동을 자신의 생각으로 맞추지 않으려는 것으로 하며, 그런 상태에서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연찬을 통해서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남녀관에 있어서는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키워지기를 연찬함으로써 차이를 존중하고 조급의 차별도 없도록 한다.

육아는 야마기시즘의 어린이로 키우는 것을 중요시하며 참애정은 과보호, 과간섭, 과감시하거나 사물화하는 맹목적인 애정과 구분한다. 그래서 어린이 본래의 천진스러움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 내 자식이라는 관념이 들지 않도록 5살까지는 1주일에 한번만 부모와 같이 지내되 나머지 기간은 공동 육아되며, 밤에만 부모있는 곳으로 간다. 6살부터는 어린이들만 위한 거주시설로 옮겨가서 공동 생활을 하게 한다. 학교 교육을 원하면 인근의 학교에서 그대로 받도록 하고 다만 공동체의 아이들끼리 연찬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과 학교 교육을 어울리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원칙 없으면 산안회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어느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가르칠 수 없으며,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무엇이 진정 옳은가를 직접 체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주의적 성격보다는 사회성을 강조하고 주위와 조화해 나가는 것을 체험을 통해 배워가며 책상 위에서 책을 통한 공부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실제적인 일을 통하여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¹¹⁾ 현재 도요사또 실현지에서는 초등부에서 대학부까지의 교육과정이 발족되었으며 학원에는 반드시 부속 농장이 딸

려있어서 중등부나 고등부에 딸린 부속농장의 넓이가 대단히 크다.

④ 산업구조

야마기시의 산업은 철저한 순환을 대원칙으로 하되 반드시 자연농법, 유기농법, 특별히 과학기술을 배제한다든가 하는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다. 초기에는 양계를 주로 하였으나 지금은 양돈, 양우는 물론 쌀, 과수, 양파, 감자, 채소 등의 1차 농산물과 2차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을 벌이고 있다.

양계에서 배출되는 계분은 다시 톱밥을 넣어 사료로 쓰고¹²⁾ 야채를 씻은 물은 다시 채소에 물을 주는 등 철저한 순환을 고집하며 버리는 것이 없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한편 이들이 만들어낸 농산물 등은 일 년에 1회씩 거저의 축제라 하여 야마기시의 참획자¹³⁾나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와서 거저로 먹고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인간 사회에 나눔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1991년부터는 시대적인 추세에 맞추어 정보 산업 개발과 각종 소프트 산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야마기시의 공동체 마을은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가치가 있는 공간이고 현재 한국에서도 야마기시 생활 실현지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연찬 학습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개인의주의와 아집』에 의한 사고를 떨치고 일체의 삶을 구현하는 삶의 모습을 터득하고 있다. 야마기시 공동체에서의 일체의 삶은 곧 인간과 인간의 일체 사회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일체적 삶이 이루어져 환경에 거스림이 없고 지형합일이 되는 생활 습관을 배양함으로써 어렸을 적부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건실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현장 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1) 모든 곳이 교실이다. 어느 것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할 것은 없다.

12) 톱밥 사료 방식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료 제조법이 되어 있다.

13) 산안 농장에서 실제 삶을 누리고 있는 야마기시 가족들을 참획자라 부름.

2. <사례 2> 핀드혼의 경우

1) 핀드혼의 교육 프로그램

핀드혼은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세계의 공동체를 구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교육 공동체로서 알려져 있다. 핀드혼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영적 수련(靈的修鍊)을 통한 빛의 연쇄망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연계시키려는 일련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핀드혼의 기원은 1960년대로 올라가 스코틀랜드 북부의 인버네스에 있는 클루니힐이라는 호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던 영국인 피터 캐디와 에일린 캐디 부부의 실직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

핀드혼의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지는데 여름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를 말하고 겨울 프로그램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를 말한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단 하루동안 탐방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1주일 체험, 또는 2주일 내지 3주일 체험 코스, 3개월간 계속되는 프로그램 또는 6개월 내지 1년간 계속되는 영성 수련과정들이 있고 또 학생들만 받아들여 1년간 영성수련에 참가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다.

내용적으로는 공동체에 필요한 각종 작물을 직접 재배해 봄으로써 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살아있는 대지의 힘을 느낌으로 체험하려는 Touch the Earth라는 프로그램과 예술작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희열과 섬세한 예술혼과 그것이 자연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어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과정으로 대표적인 것은 목공예나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다. 실제 핀드혼에는 나무를 가공하는 곳(목공예실)과 도자기를 굽는 가마가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으며 도자기 작업장에는 전문 도공이 항상 자리를 지키고 앉아 수련에 참가하는 수련생이나 공동체 내의 체류자들에게 이를 지도하고 그들로 하여

금 제작과정에서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핀드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품 중 특히 천조각을 따로 모아서 각종 생활에 필요한 섬유류를 만들어 내는 과정도 있고 직접 거주할 공간을 초자연적이고 완전 생태적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도 있다. 실제 필자가 이 곳을 답사할 때도 통나무 집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었으며 특히 지붕을 흙으로 엮고 거기서 다시 풀이 나도록 하여 보은과 차광을 동시에 해결하는 경우나 벗집 다발을 단단하게 뭉쳐서 집의 벽체를 메꾸는데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땅 속을 파내고 잠석을 모아다가 돌로 주변을 두른 다음 가운데에 화덕을 설치하여 난방을 하는 얼핏 보기에는 원시인들의 귀틀집같은 형태의 집을 서로 같이 만들기도 한다. 또 Transformation Game이라고 해서 소규모 지역 사회로 사람들이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살 때와 거대규모로 살 때 인플레이션 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직접 체험해 보게 하기 위한 게임을 하기도 한다. 이 게임은 실제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지역주민(공동체의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예컨대 전기공은 가전제품 수리, 전기 가설, 전화 가설 등)을 설정하여 이를 수요자와 거래를 해본다. 거래관계는 자신의 비용과 이익을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합산하여 그 결과를 자신의 순이익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거래를 행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정한 화폐와 일반 거대사회(시장경제체제)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분리하여 거래는 공동체 화폐로 하고 나중에 일반사회의 화폐로 이를 다시 환산해서 거래에 참가한 공동체 구성원들 전부가 발생시킨 순이익을 모두 더해 본다. 이 더한 값을 일반 화폐로 환산했을 때는 비교가 안될 만큼의 인플레이가 발생,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스스로가 거대한 화폐구조(시장구조) 속에 매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꼭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핀드혼의 일상적인 생활은 자연과의 교감과 영적

수련으로 일색이다. 우선 인도나 티벳에서 들여온 각종 불교음악이 여기서는 일상적인 생활 음악이 되다시피 하였으며—서양이기때문에 짙으나 락이 일상화 되었을 것같지만—요가나 티벳의 명상음악에 맞추어 그룹으로 모여 춤을 추는 동작 등은 모두가 영적 수련 과정의 생활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그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느끼려고 한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본래 둘이 아님을 그들 눈과 촉각과 냄새와 마음으로 확인하는 작업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당연한 두번째의 수행 과정이 되어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실제 그들의 식량이 되는 채소와 과일을 가꾸는 일을 직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숲 속에서 실제 초목들의 떨림, 말, 감성을 느끼려고 실제 초목처럼 풀과 나뭇잎 등으로 분장을 하고 나무 옆에 서거나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가면을 쓰고 라마 불교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거나, 인도식의 요가를 하기도 하고 그냥 숲을 거닐면서 자연의 숨결에 동화되려는 일련의 동작을 한다. 이런 동작들이 자연을 느끼게 하는데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의 대답은 『꽃이 이유가 있어서 피느냐?』라는 것이었다.

영성수련의 또 다른 과정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이다. 그들은 흔히 모든 의식이나 행사에 앞서서 꽃으로 장식된 촛불을 가운데 두고 손과 손을 서로 맞잡고 또는 그냥 명상의 자세로 둘러 서서 서로의 마음이 교감됨을 느끼려고 한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복잡하면 서로가 위로하는 자세로 마주서서 손과 손을 마주잡고 말이 없이 마음을 전한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 어디서라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 촛불을 두고 산다 그 이유는 물었더니 『단지 그 빛은 살아있는 빛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¹⁴⁾

그것은 핀드혼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영적

수련의 실체이다. 그들은 모두 살아 숨쉬는 생활에 대한 강한 동경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자연의 울동을 느끼고 바람의 숨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모든 의식을 행할 때 가운데에 두고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명상으로 의식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촛불이 살아있는 자연의 울동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 도시의 어느 사무실에 켜 있는 형광등을 보자. 그 빛을 우리는 그저 〈밝음〉이라는 것에만 만족되어 그 빛의 다른 의미를 잊고 사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밝음은 이미 기능적인 빛에 불과한 것이지 〈살아있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핀드혼을 탐방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그들이 교육공동체로서의 터전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들의 섬세한 느낌과 자연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를테면 촛불의 떨림이 곧 자연의 울동임을 직관으로 감지해내는 바로 그 느낌의 힘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환경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느 제도권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이겠는가? 성과면에서도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이곳의 프로그램과 생활을 경험하고 간 사람들의 수가 이미 3만을 넘었다 하니 이것이 스코틀랜드 지역의 사람들에게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자연의 울동을 느끼고 그 숨결을 일상으로 옮기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핀드혼의 어느 거리에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다. 명상을 위한 〈조용한 숲; QUIET GUARDEN〉 참으로 금방이라도 심령의 세계로 나의 모든 것이 빠져들 것만 같은 정적과 고요가 흐르고 그 속으로 자연의 숨결이 느껴져 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14) 클루니 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메크로우클린과의 인터뷰에서.

3. <사례 3> 동사섭(同事攝)

동사섭은 대안(encounter) 운동의 영향을 받은 일종의 집단수련 운동이다.¹⁵⁾ 소규모 공동체처럼 어떤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그룹으로 모여 마음의 바탕을 티끌도 없이 함께 하자는 심성개발 훈련이므로 환경교육적 효과면에서 공동체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동사섭은 보통 1회에 5박 6일로 행해지며 크게 두 부분으로 의미 영역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반부는 마음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후반부는 마음 관리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다.

(1) 마음 나눔의 場¹⁶⁾

주된 초점은 심정의 교류를 하는 것이다. 동사섭 현장에서는 참석자가 한 그룹으로 모두 빙 둘러 앉아서 서로가 자신을 포함한 모두에게 꾸준한 관심을 의지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처해지는 상황마다 일어나는 감정을(감정, 욕구) 교류하는 것이다. 여기서 관심이란 더불어 하는 이가 어떠한 마음 상태일까 마음 기울여 하고픈이요, 나아가 기원하고 축복함이요, 찬사하고 찬탄함이다.

동사섭 현장에서는 상대방에 어떤 마음 상태인가로 시작되는 궁금 상태에서 출발하여 관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상대에게 안부를 묻고 기원하고 감사드리며 찬탄하면서 행해지는 구체적인 감정교류 과정들이 있다. 이러한 관심의

대지평 위에서 모두가 모두의 정서를 함께 교류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 구조나 원리는 간단하다. 자신의 가슴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현을 이해 공감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그 말씀을 들으니 기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충분히 화가 날만 하네요. ...님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그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님은 아직 말씀을 안하시니 살피지는군요. ...하시니 자연스럽게 불쾌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동.』

다시 말하면 동사섭 현장에서는 관심과 표현, 공감, 반응으로 구분하여 이들 구조의 자연스런 이해와 필요성의 자각을 거치면서 각자의 역할을 실습해 보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타고 참석자 모두는 자연스런 흐름 속에서 감정 교류에 나타난 스스로의 역할이 체험되어진다.

우리는 평상시에 끊임없이 말하고 들으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지만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하고 듣는가에 대한 관심과 시각의 부족으로 생기는 술한 갈등과 오해, 삭막함을 이 동사섭 현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풀어가는 것이다. 이런 체험의 과정이 몇 번만 반복되면 스스로에게 티끌만치의 의심이나 거리낌이 없이 참가자 전원의 한 그룹이 일체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가 일화가 됨은 곧 앞에서 설정한 개인주의와 리바이던의 출현에 의한 교육의 모습은 분명히 지양되는 것이다. 이 일체감은 곧 자연과의 일체감이요, 이것이 느낌

15) 원래 「섭법」이란 말은 불교에서 보살들의 생활방법을 말하는데 布施法, 愛語法, 利行法, 同事法의 네 가지 섭법이 있다. 심리학적인 T-GROUP 운동을 참고 하여 1985년 무렵에 전북 남원군 인월면 백장암에서 龍陀 스님에 의해서 처음 시행된 심성개발 프로그램이다.

그 뒤 그 취지를 아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소그룹으로 장소에 불문하고 시행하고 있다. 실제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은 아니나, 필자가 참가한 경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기존 관념에 의한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고 올바른 마음으로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공동체 이상의 인간성 개발훈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사섭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내용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동사섭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시켜 관념화하기 때문에 직접 참가해 보기 전에는 설명한다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

16) 박호열, 월간 해인 1993. 6월호

의 환경교육인 것이다. 환경교육의 모습이 강단에서 지식으로 전달되는 그것과 합리적 사고 구조 속에서 사회적 선택의 갈등구조를 해결하려는 현실적 인식수단은 이런 것에 비하면 대단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2) 마음 관리의 場

전반부인 마음 나눔의 장에서는 가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면 후반부인 마음 관리의 장에서는 바른 견해의 중요성이 이야기되며 이를 체득하기 위한 관행(예: 명상 등)이 함께 행해진다. 먼저 한 그룹의 참석자가 모두 모여 앉아 진행하는 방식은 전반부와 같다. 그러나 여기서는 표현의 방식이 약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이구나! ...하겠지.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그만하니 감사하다. 한 방 때리는구나! 두 방 때리지 않으니 참으로 감사하구나!』

즉 위와 같은 표현을 계속하면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긍정과 명상을 통해 일체 만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열어간다. 어떤 상황에 처해져서 “구나“, “겠지“, “감사”를 적용시켜보면 놀라울 정도로 감정의 경계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 웬만한 감정의 경계엔 흔들리지 않는 가슴을 가지게 되며 이것의 경험은 이후에 계속적인 마음 관리로 연결되어진다.

VI. 결 론

환경교육은 20세기 이후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 마지막 남은 교육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많은 기대를 내포하게 된다. 거기에는 자연과 인간, 사회, 문명, 도덕, 철학, 문화 그 모든 것이 함유되어 있고 또 함유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허클(1983)은 환경교육 자체를 환경으로부터의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환경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해서 설명했는데 그는 이 중에서 환경을 위한 교육만이 환경복지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론과 실재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환경으로부터의 교육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경의 질적 저하를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며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정치적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에 대한 교육의 경우 환경교육과 이를 통한 환경의 관리가 사회정책의 중립적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일정 부분 주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이 현실적인데 그칠 뿐이며, 환경에 대한 사실 등에 대한 지식의 나열만 강조한다고 비난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대한 가치」 그 자체는 오직 이 사회에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여 적용될 수 있으면 타당성을 인정하되 그렇지 않으면 뜬구름잡는 이야기로 도외시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필자가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허클의 이야기와 상통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셈에 밝은 행위자들에게 있어서 자연 친화적 교육은 지식의 전달일 뿐인 가능성이 높으며 합목적적 행동의 연속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도 자연 친화가 마치 강아지를 쓰다듬고 보듬어주듯이 하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라면 오늘, 우리의 환경교육의 방향은 본질을 상당히 도외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아지가 귀여울 때만 예뻐 보이는 지식은 본질적으로 사상누각이다. 다만 우리는 강아지 보듬고 다니듯이 자연을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을 뿐이다.

인류가 선택해야 할 마지막 대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은 참으로 『만병통치약』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의 환경교육이 어떤 모습을 그 바탕에 깔아야 하는가가 과

제이다.

필자는 우리가 환경교육의 모습을 지금 철저히 생각해 자리매김해야 되는 당위성을 다음 근거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 17C 이후로 세계구조는 서구 중심이었다는 점인데 여기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서구 중심이었다는 바로 그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서구 중심의 학문이란 그 학문적 토양을 학문적 제국주의에 점철되게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Edward W. Said 교수가 말하는 오리엔탈리즘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사상과 학문이 그 시대의 모든 정신사조를 지배하는 원동력임에 틀림없는 것이라면 학문적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그 동안 우리가 습득해온 지적 체험이 대부분 학문적 제국주의에 억눌려 형성되어 왔을 것이라는 점이다. 환경교육에서 이점이 간과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의 자생적인 민족은 가장 그 지역의 환경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정설이다. 환경교육이 그 시대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 민족 자체에게 자연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했었던 틀은 어디로 간지도 모른 채 학문적 제국주의에 억눌려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컨대 요즘 부르짖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도 이런 논리에서 보면 학문의 오도된 우세가 일방적으로 판치게 될 뿐이지 생태적으로 올바른 환경교육과는 크게 거리가 멀다.

원래는 자생적으로 생태적 균형을 잘 이루어 살던 지역도 외부의 침입이나 문화적 영향으로 균형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곳이 지구상엔 수없이 많다. 예컨대 아프리카 지역이 유럽의 식민지 시절에 대단위 방목으로 사막화 속도가 대단히 가속화되었으며, 미국의 인디언들이 주객이 전도된 채 그들 삶이 균형을 잃었으며, 유럽인이 아시아나 지금의 호주 땅에 유입될 때도 그랬다. 특히 이런 측면은 환경적으로 환경제국주의라는 말로 통용되고 있을 정도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학문적 제국주의도 인간의 사고영역에 꼭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전후의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자연이 우리에게 가장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여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바로 이런 현상에서의 이 땅의 동양적 자연관의 개념이나 또는 자생적 자연적용 과정을 환경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확실한 자연관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 세계를 토대에 둔 우리로서 만일 우리 고유의 환경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더욱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두번째는 합리적 사고가 20C를 넘어 오면서 자기계산에 밝은 경제적 행위자의 사고로 전락한 마당에서 썸에 밝은 행위자가 공공재인 [환경재]에 죄수의 딜레마나, 고립자의 상황이 아니게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이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며, 셋째는 17C 이후로 현대에 이르기까지 급속도의 과학발달은 소위 가치와 사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 온 과정이었는데 앞서 말한 환경의 존재론적 가치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하는 점이다. 네번째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속성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풀어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인데 예컨대 가장 현실적으로 오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다량의 공장 폐수를 방출하는 기업가에게 있다는 것을 일반의 소시민과 그냥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환경교육은 구조의 속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일반 대중 소시민 대상의 경각심 고취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만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다면 환경교육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분명히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은 소시민, 일반 대중보다는 기업가에게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책임이 있고 따라서 정책이나 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될 문제로 접근해야지

교육은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르며, 특히 목적의 이익을 최고 가치로 판단하는 기업가에게 교육의 순리가 통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내가 지의 문제는 환경교육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할 관점이고 아울러 풀고 들어가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한편,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의 이상사회라고 판단, 회의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전 역사에 걸쳐서 유토피아에 대한 꿈은 끊임이 없었고 현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인류가 찾아가야 할 삶의 원형이요, 잃어버린 본성을 찾아나선 여정으로 다시금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의 이해에 대한 어떤 유파의 환경론에서든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만큼은 항상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환경교육의 방향은 기술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95년도 부터 실시되는 환경교육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많은 교육방법들이 강의나, 실험, 답사, 관찰 등을 통하여 과정을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환경문제의 원인을 간파해내는 느낌의 교육방법들은 아니라고 본다. 환경교육 만큼은 느낌에서부터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학습이 바로 공동체 실현지이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항상 실현지로서 갖쓰고 오토바이를 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 스스로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다. 분명히 그들은 현대를 외면하거나 자본주의 경계를 깡그리 부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대안적인 체제를 독특하게 내세워 잘 되고 있는 공동체는 정말 잘 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자연계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 관찰이 필요하였듯이 이제 인간의 삶 자체도 어떤 과잉된 소비욕구와 과잉된 잉여자본의 축적과 착취로 인한 너무나 원래의 정형에서 벗어난-일탈된-상태이므로 우리의 삶의

전형이 무엇이었는가를 유리창에 둘러싸여진 공동체의 모습에서 우리의 전형을 배워와야 한다.

무릇,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습자와 피학습자가 절반 씩의 책임이 있다.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이 가슴에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의식과 사회적 행태가 일치되어야 할 것임에는 누구도 부인 못할 일일 줄로 안다. 특히 그것이 환경교육일 때는 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의 환경교육은 가르침보다는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혼재된 가치관으로 인해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주어도 그 교육의 목적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환경교육은 인류 생존의 절심함과 상통하는 문제이므로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것이 인류에게 제시해주는 방향성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환경교육이 우선 이러한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 환경교육이란 급변하는 정보시대에 끈임없이 개발 생성 소멸하는 일회성 지식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영구불변의 진리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둘째, 환경교육은 그 내용의 속성상, 피학습자의 두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가슴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학습자는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성이 먼저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 환경교육은 가치교육이거나 최소한 가치교육 우선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갖가지 교육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방법들이 아련히 떠오르는 어린 시절 우리가 살던 자연의 그리움처럼 우리의 삶의 양식에 배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나 교육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실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란 현실적 상황에서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환경교육의 극대화된 효과는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런 식으로 뇌리에 박히지 않고는 환경교육의 목표들이 본질적인 의미에서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교육은 학습 내용 그 자체에

대한 비중보다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릇(공감할 수 있는 느낌의 마음 상태)을 키우는 작업이 더 비중있게 우선적으로 다루어져 한다.

또한, 경제체제적 차원에서 공동체의 경제구성을 보려 하는 것은 그동안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설정하는 차원에서 근본생태주의에서 환경개량주의, 생태맑시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논점에 따라서 제시되는 경제구성체의 형태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제시되는 대안에 대해서도 공통성은 있으나 제각기 다랐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제시하는 경제구성체의 원리는 어떤 논점으로 설명해야 타당성이 있겠는가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의 환경교육론을 정립해 보기 위한 것이다. 개량주의, 사회생태론, 생태사회주의, 생태 맑시즘적 관점들에 대한 입장의 정리를 통해서 앞으로 실현될 사회의 모습에 대한 양식으로서 가장 어울리는 것이 사회생태론이고 이것이 바로 동양적 정서에도 가장 잘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충분한 실험을 거쳐 사회생태론의 사회적 환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고증하여 이것을 그대로 고집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 이 시대의 삶과 산업구조 그리고 이태오르기에 걸 맞는 우리의 환경교육론이 무엇이겠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이 논문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김호기(1994).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2. 대안교육을 생각하는 모임(1995). 새로운 학교 큰 교육이야기. 내일을 여는 책
3. 박호강(1986). 공동체 가치의 현대적 실현 가능성. 현대자본주의와 공동체 이론. 한길사. pp. 228-252.
4. 박효중(1994).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 I, II. 인간사랑
5. 서울 YMCA(1994). 환경교육 사례발표회.
6. 유정길(1992). 『생태적 지속가능한 사회로서의 계획공동체의 모색』 서원과 연대 5호, 불교사회연구소.
7. 황경식(1995).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 현실사.
8. 황만익(1989). 환경문제와 환경교육, 한·독 환경교육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9. Merchant, C.(1994). Rdical Ecology.
10. Odum, E(1990). The Fundamentals of Ecology.
11. Pepper, D.(1982). The Root of Modern Environmentalism. Routlege
12. Pepper, D.(1993). Communes and The Green Vision.

ABSTRACT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in Small Planning Community**—In Cases of Yamagicism Village, Findhorn & Dongsasup Program—**

Kim, Tae-Kyung(Kyungin Woman's College)

Environmental problem and eco-crisis don't mean pollution itself any more, although general people have believed that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resolved by removing pollution. The most important is environmental problems are linked with social structure which individualism, rationalism is extremely prevailed in the market oriented capitalism society, so public value is ignored especially. In the point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environmental education is not completed through schooling process, such as class learning, discussion, observation etc, but in the our practical life itself. This means that environmental education can be done by changing of lifestyle anywhere we live, and anytime. But any places governed our social life are polluted by efficiency pursuing individualism in market oriented capitalism society. So environmental education can't hold the water in this system, in the aspect that we can't stimulate feelings of the student and general people, getting to public resource value and harmony with nature by throwing individual mind away. It is big problem.

In this field, I have thought the unique space and social structure which can be used as environmental education place is small-planning community, such as Kibbutz in Israel, educational community Findhorn in Scotland, harmony community Yamagicism Village in Japan and DURE in Korea etc. For the research of this educational possibility in these small community, I visited and investigated immediately, and confirmed. In this thesis, I insist that the training process and practical life experience in this community themselves are good environmental education. So, in case of YAMAGICISM in Japan and FINDHORN in Scotland, DONGSASUP program in Korea, I introduce these small community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